

93.7.30

'이혼녀' 딱지 두려워 8년간 맞고 살아

여성의 전화 수기공모 최우수작에 뽑힌 지윤자 씨



◀ 지윤자 씨

“남편에게 매를 맞으면서 항상 느꼈던 것은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소외감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만 고통을 삼키곤 했죠.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동료의식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런 고통을 이기고 나처럼 당당히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많은 매맞는 아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자신의 체험담을 글로 옮겨 보았다는 지윤자(45)씨.

한국여성의 전화 1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매맞는 아내 수기공모’에서 ‘아! 이제는 눈부신 햇살처럼’으로 최우수작에 선정된 그는 글을 쓰게 된 동기를 “고통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담담히 털어놓는다.

결혼 후 8년 동안 병원에 다섯차례나 입원해야했을 만큼 남편의 살인적인 폭력 앞에서 항상 두려운 나날을 보내야 했던 그가 ‘이혼녀라는 딱지’를 무릅쓰고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살기 시작한 것은 90년 3월21일,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91년 11월 한양직업훈련원에 원서를 내면서부터였다.

대답을 안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때리고, 대답하면 말대꾸한다고 때리던 남편, 코골고 잔다고 때리고 반찬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때리고

똥똥하다고 때리던 남편, 부부는 하룻밤 자고 나면 끝이라며 일방적으로 성 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건방지다고 또 때리던 남편, 그런 남편에게서 벗어나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었고 아이들을 쫓겨치고 집을 나설 자신도 없던 그였다. 참고 살다 보면 언젠가 웃을 날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사라져 버린 것은 전치 5주의 상처를 입고 남편을 피해 집을 나온 이후였다. 참고 살다 가는 언젠가는 남편에게 맞아 죽을 것이라는 구체적 공포에 맞닥뜨리자 결단을 내려야했다. 위자료도 친권도 포기했다. 단지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무조건 이혼’을 강행했다.

이혼한 후 살아갈 자신이

도했다. 먹고 살기 위해 공사판의 막노동을 비롯해 파출부, 식당 종업원 등 1백여가지가 넘는 일을 전전하기도 했지만 어떤 일을 해도 ‘자신의 밥과 주거공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다시 남편의 그늘 밑으로 들어갈 것 같아” 자격증을 습득하기로 했다. 그는 우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습득할 생각으로 공부를 했지만 낙방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타워크레인

에 눈을 뜨게 됐다. 당시 한양직업훈련원에서 중장비 운전사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었다. 모집 인원 총70명에 1천2백여명이 응시했다.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이었지만 그는 면접관에게 “잘할 수 있다, 기회를 달라”고 때를 썼다. 다행히 면접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지만 공부에서 손을 뗀 지 오래라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힘들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내 인생은 영영 끝”이라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공부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내고 난 이후에 기중기 기능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는 “언젠가 만나게 될 자식들에게 당당한 엄마로 서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딸이 엄마와 닮았다는 이유로 배란다에 발가벗긴 채 3일간을 세워놓던 남편의 포악한 모습이 눈에 선했지만 그럴수록 일에 매달렸다.

방 한칸 없이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로 일하기를 5년째

리던 12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외로움, 이혼녀에 대한 편견 등 ‘산남어 산’을 넘어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한 것이다. “매맞는 아내들은 누구나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다는 일반적인 편견 때문에 더 큰 희생을 당합니다. 또 그런 편견을 극복하고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식까지 버릴 만큼 독한 여자이기 때문에’ 매맞는 것도 당연하다는 지탄을 받게 됩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모를 고통인데 자신들의 짧은 생각으로 난도질을 치는 것이죠.” 그는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아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피해당사자인 여성들에게는 “나도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지금은 공포에서 벗어나 발 뻗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코골고 잔다고 때리는 사람이 없어서 행복하다”는 그는 “이혼녀일수록 삶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이 강하다.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용기를 불러일으켜줄 수는 없느냐”고 주문하기도 했다.

남편이 재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다는 그는 새벽 5시면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다. 오직 그만의 삶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